

신풍 강씨집안이우다.  
강씨성방 강씨대감이  
서월 신연살례  
갓단 오는 질에  
원당고을에 들어  
중식을 흐는디.  
동니 굿청에  
열다섯 시오세 안밧의  
고운 비바리가  
갑사청 쾨지에  
연반물 치매를 입고  
굿을 흐는디  
천하 일색이라.  
유향소에 성맹 문안을 흐난  
“도내의 심방이라”  
흐였수다.  
강씨대감은 그 비바리를  
소실로 들여  
도폭 쏘곱에 곱젼  
유향양촌을 들어오난  
양반의 집에  
천인 첨을 들일 수가 엇이난  
트로 집을 짓언 살게 흐고  
굿을 못 흐게 흐였수다.  
초대 좋은 할마님은  
매날 문을 덕거놓고  
춤을 추어도  
간장을 풀리지 못 흐였수다.  
낭대죽대 몸은 몰라지고  
춘삼월 혼물끼에  
문을 중간 들어맞아  
안으로 불을 질러  
좋은 청춘 다 못살아  
원통 흐게 이싱을 떴수다.  
“야속 흐고 원통 흐연

양반광 곁이  
기일제소 스멩질을  
받아먹을 수 엇노라.  
안으로 안칠성으로  
위<sup>으</sup>여 도라.”  
호난,  
안칠성으로 우양<sup>으</sup>곡  
밧칠성으로 나누어,  
성손 외손 동니 친근에  
발이 범곡 줄이 범던  
조상이우다.  
오늘날로 이 주당  
굿문을 잡아시니  
금정제 소리에  
일천간장 신풀립서.  
호서동 좁저고리 〽심  
열두폭 금사치매 〽심  
대령<sup>으</sup>였수다.  
일천간장 신풀립서.

<성산면 신풍리 여무 64세 홍매화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94-695.